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행동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성탄절 메시지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이 즐겁기도 하지만 사실 이날은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 온갖 불안, 근심, 회의, 고독, 고통에 짓눌렸던 백성에게 갑자기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취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을 때 심판이 다가옴을 알고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은 더욱 무서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무서워 말라”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냉혹한 운명을 바꾸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려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친구로 떨서와 푸대접을 받으시며 존재의 심연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잃어버린 자들과 억눌림을 받아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평화와 소망으로 찾아주십니다. 그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슬퍼서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을 펴 주시고 눈물로 얼룩져 비통해하는 자에게 웃음을 채워주십니다. 천한 자, 괴로워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 지위를 높여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이고 상대적 평화가 아니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하늘 시민이 누릴 거룩한 평화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차원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세계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가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는 오늘도 우리 곁에 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와 진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경배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서울교회의 모든 권속 위에, 북녘땅에서 애소하고 있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영원토록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기쁘다 구주 오셨네!

- 22일(주) : 교회학교 성탄 축하 특별행사 - 찬양예배 시
- 24일(화) : 성탄 전야예배 - 오후 8시
- 25일(수) : 성탄 새벽예배 - 새벽 5시
성탄 축하예배 - 오전 11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성탄 축하 특별행사가 있으며 선물 잔치도 열린다.
성탄절 전날인 24일(화) 오후 8시는 서울교회 찬양사역자들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특별감사 찬양과 성탄 전야예배를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

리고 성탄절 당일 25일(수)에는 새벽 5시에 성탄 새벽예배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예배를 드리며 성탄 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 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연말 연시 행사

- 12월 29일(주) : 교회학교 별 졸업감사예배
찬양예배 시-항존직 은퇴식 및 장로안식년제
성경통독자 시상/장한 어머니상 시상
찬양예배 후-특별제직회
- 12월 31일(화) : 송구영신예배
- 1월 5일(주) : I·II·III부 예배 시 신년감사예배·성찬식
찬양예배 후-공동의회

2019년 마지막 주일인 29일은 각 교회학교 졸업감사예배가 교회학교 별로 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와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과 장로안식년제, 성경통독자 시상, 장한 어머니상 시상 이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로 모인다.
2020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1월 1일 0시 정각,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시작된다. 2019년 12월 31일(화) 오후 11

시 30분에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등 되었다가 0시 정각, 강대상 에 촛불이 켜지면 이종운 원로목사의 인도로 시작 된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오후 11시 30분 소등이 되기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2020년 첫 주일인 1월 5일 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갖는다. 찬양예 배 후에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인다.

2020년을 섬길 일꾼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청년1, 2부는 지난 11월 10일(주) 총회를 통해 2020년을 섬길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청년1부는 오원종 성도를 청년2부는 하상영 집사를 각각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고등부도 지난 주 12월 15일(주) 총회를 통해 2020년을 이끌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고등부 회장은 문영주 학생, 부회장으로는 김지석 학생을 각각 선출하였다.



오원종 성도
(청년1부 회장)



하상영 집사
(청년2부 회장)



문영주 학생
(고등부 회장)



김지석 학생
(고등부 부회장)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화1 김형상·최금숙 윤종현1 무명1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12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2월 22일 :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
- 12월 29일 :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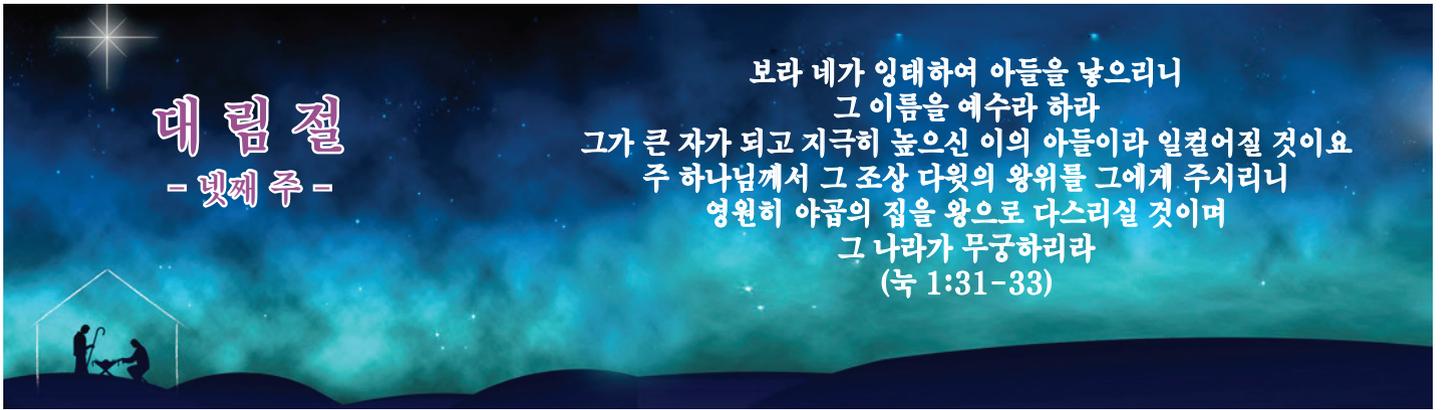
2020년도 농어촌100교회 Vision2020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모집

2020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 용지를 로비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2019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후원자로 신청하셨던 성도들도 남은 기간동안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 성경통독

2019년 시작과 함께 시작한 성경통독을 이제 마감한다.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는 성경읽기표를 1층 로비에 있는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찬양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되 섬기러 왔노라 하셨으니 이것이 신비입니다. 높아질 줄만 알고 받기만을 좋아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주는 삶을 살 때, 낮고 낮은 말구유 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요,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육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성탄 축하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오셔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주세요. 교육국 학생들이 준비한 그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믿음의 눈으로 풀어보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나누어 보세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 오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널리 전함시다!

- 교육위원회 교사 일동 -



권사회 회장 섬김을 마치며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허 숙 권사 (2019 권사회 회장)

올 한 해 권사회장으로 많이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권사회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그간의 모든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흔히 권사를 기도의 어머니, 섬김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올 한 해 나는 기도와 섬김의 사명을 다했는지 돌아봅니다. 지난 1년 권사회의 가장 큰 사역은 역시나 주일 식사 준비였습니다. 작년 3월 갑작스런 불법 용역 사건이 있을 후로 거의 2년 동안 기적과 같이 매주일 베델 하우스에서 성도님들의 식사를 만들어 교회로 나르며, 베델하우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맛있게 식사를 하시며 행복해하

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거짓말같이 새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사역을 꼽자면 전도회원들과 살롬권사회와 함께 했던 수요 기도회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했던 절절한 기도가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서울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총회재판국에 우르르 몰려갔던 일들, 교회회복기금을 위해 했던 사업들, 야외 예배를 갖던 일, 스테반 집사들과 함께 했던 이틀 동안의 감장 등, 이 모든 사역들은 권사님들과 함께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마음에는 연약한 분들을 좀 더 돌아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2020년 신임 권사회장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권사 회장직을 수행하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 년 내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올 한 해 권사 회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를 뒤에서 믿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신 귀한 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내내 식사 당번을 감당하신 임원들, 모든 일에 한 몸처럼 움직여주신 우리 권사님들, 권사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지도해 주신 장석남 목사님 모두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서울교회 찬양사역자들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특별감사찬양을 드립니다.

12월 24일 화 오후 8시 성탄전야예배 때
솔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성탄 특별감사찬양을!

하물과 죄로 얼룩진 한 해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흠어지고 피곤한 영혼에

교회회복을 바라며 주의 은혜가 넘치길 소원하며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찬양위원회 위원장 최형열 장로



김도은
(가브리엘찬양대 MS.)



박승기
(가브리엘찬양대 피아니스트)

1.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O thou that tellest good tidings to Zion"
(G.F. Händel Oratorio - Messiah)



신모란
(시온찬양대 SOP.)



이주희
(임마누엘찬양대 피아니스트)

5.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노용진)



이덕근
(할렐루야찬양대 BAS.)



김양언
(할렐루야찬양대 피아니스트)

2. 저 하늘은 주의 영광 찬양하고
Die Ehre Gottes aus der Natur
(L.V.Beethoven)



6. 아멘관현악단
(Fl.윤승호 Ob.이보람 Cl.김효정 Bn.지인석 Hrн.최광희)
Christmas Festival
(L.Anderson. / arr.Adrian Wagner)



장윤아
(임마누엘찬양대 SOP.)



이주희
(임마누엘찬양대 피아니스트)

3. 거룩한 밤
O Holy Night
(Adolphe Adam)



안민우
(베들레헴찬양대 TEN.)



정하나

4. 마라나타
Marana tha
(고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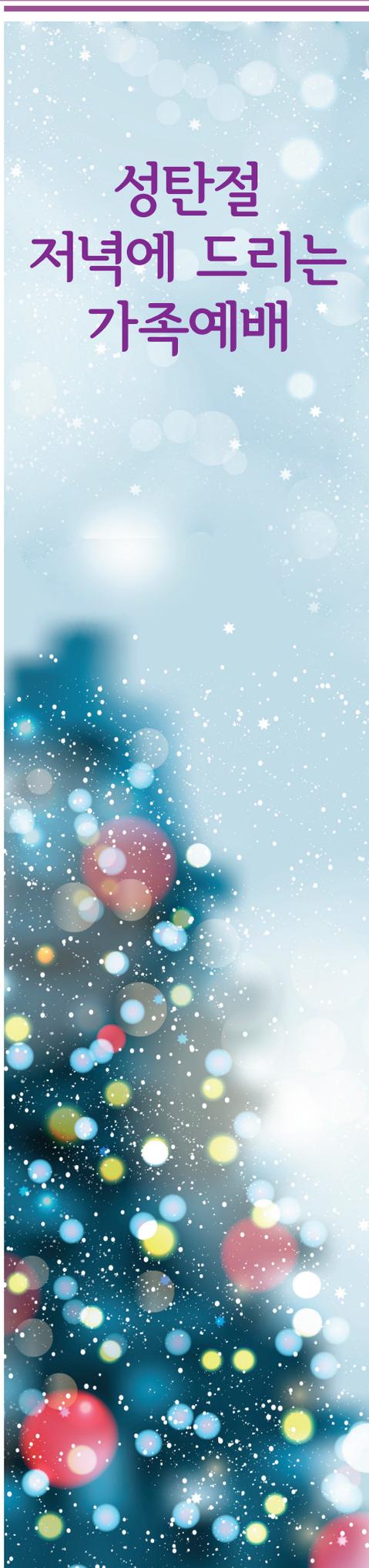


최영운
(예루살렘찬양대 SOP.)



유기순
(영어예배부 피아니스트)

7. 예수 나의 기쁨
Jesus bleibet meine freude
(Johann Sebastian Bach)



성탄절 저녁에 드리는 가족예배

예 배 순 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가족 중 어른
 신앙고백.....사도신경.....다 함 께
 함께 부르는 찬송123장(통일 123장)..... 다 함 께
 교 독 문.....다 함 께

- 인도자 :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 가 족 :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 인도자 :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 가 족 :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 인도자 : 오늘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다.
- 가 족 :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 인도자 : 너희는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 가 족 : 이것이 바로 그 분을 알아보는 표적입니다.
- 인도자 :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 가 족 :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감사기도다 함 께
 함께 부르는 찬송111장(통일 111장)다 함 께
 말씀.....누가복음 1:26~38..... 가족 중 어린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 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탄절 메시지성탄의 세 가지 기적.....가족 중 어른
 주기도다 함 께

성탄의 세 가지 기적

성탄절에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현대인들은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받아 드리는 데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 섬김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행 4:12)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월성을 기초로 하는 사건이므로 이 세대의 유일한 대답이며 희망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가감없이 믿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사형연도와 같은 처녀탄생 고지를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소서' 하면서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는 충성스런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